

“통합에 감사... 교직원 적극 지원”

서거석 교육감, 완산초-곤지중 찾아... “학교 발전에 교육장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 교사 건의사항 반영도”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전주완산초등학교(교장 김명자)와 전주곤지중학교(교장 황진주)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만수 전주교육장과 함께 전주완산초를 찾아 교직원들에게 “전주곤지중과 통합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주곤지중과의 통합운영 학교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67.4%가 찬성을 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전주완산초등학교를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이어 전주곤지중학교를 찾은 서 교육감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복지사 배치와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두 학교 교직원들은 이날 서 교육감에게 △병설유치원 유지 △업무용 노트북 우선 지원 △놀이터, 북카페 등 리모델링 △보건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교 측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전주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안현중(혁신도시)의 신설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완산초와 곤지중을, 전주완산초와 전주효정중을 통합운영학교로 묶어 운영키로 했다. 완산초와 효정중 찬반투표는 이날 중 실시될 예정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

를 묶어 교장 1명이 운영하는 학교다. 각 학교에 교감을 두는 통합운영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통합 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 환경 장학금 초대 수혜자 선정

미래 연구자 양성 첫 제정 전북대 김혜빈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김혜빈 대학원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이 토양 및 지하수 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아름다운 환경 장학금’의 초대 수혜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열린 가운데 전주 동암고등학교 내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토양지하수 환경 전문가인 ‘아름다운환경건설(주)’의 후원을 받아 이 분야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김혜빈 대학원생은 최근 열린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부담 내려놓고 준비해 온 기량 맘껏 펼치길”

서거석 교육감, 전주 동암고 찾아 수험생 응원

서거석 교육감이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20여 분간 전주 동암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인내와 끈기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

분이 정말 대견스럽다”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그동안 준비해 온 기량을 맘껏 펼쳐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과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70개 시험장(별도/병원시험장 포함)에서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180명 감소한 1만7,100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총 76명으로 이중 68명이 응시했다. 이들은 각 시험지구마다 마련된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다.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18일 오후 3시 최남규 교수(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초청,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은 매달 주제별로 명사들의 삶이 투영된 이야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채워주고 있다.

올해 여섯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인문학 특강에는 최남규 전 교수가 ‘논어의 친구’라는 주제로 옛 성인들은 ‘친구’와 ‘교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문학 특강은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전주비전대, 서비스경영자격 A모듈과정 운영

참여 학생 40명 수료... 수료할 경우 자격 3급 취득 가능



전주비전대 학교 LINC 3.0사업단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SMAT(서비스경영자격) A모듈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SMAT(서비스경영자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KPC(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서비스 직무의 현업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국가공인 자격이다.

이번 SMAT(서비스경영자격) A모듈 교육에 LINC 3.0 사업에 학생 40명이 참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모두 SMAT 서비스경영자격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은 전문성이 뛰어난 강사분이 교육을 진행,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례별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훈 사업단장은 “SMAT(서비스경영자격) A모듈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서비스 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트럼 커뮤니케이션스킬 등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대학교는 1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학기 수퍼스타 배출

전주대, StarT 참여 36명 인증서 수여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은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의 이미지에 걸맞게 만들어진 전주대의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으로, StarT(Star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36명의 수퍼스타가 탄생했으며, 지난 4년간의 노력을 축하하고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인증서 증정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최고특점자인 일본언어문화학과

강유정 학생(18학번)은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 장학금은 물론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수퍼스타라는 목표를 달성해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StarT 프로그램은 2008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한 장학 연계 포인트제도로,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란 대학 이미지에 맞는 도전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전주대 선교봉사처 상품채플팀, 기부금 전달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상품채플팀 이진호 교수와 일행은 17일 대학 본관에서 최근 진행된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2’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자선거를 타고 선교유적지 답사와 타지의 재학생들을 찾아가 사랑과 응원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1km당 100원의 선교센터 건립 후원 모금을 함께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진호 교수는 박광수 전주대 동문 신동필 카페제로 대표, 전주대 선교지원실 오형제, 조경

석 직원과 함께 자선거를 타고 전주에서 임지도까지 약 350km를 이동하며,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나눔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자선거 폐달을 밟아 모은 후원금은 전주대학교 선교센터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모금액은 2,500여 만원으로 지역 교회와 주민, 기업, 교내 구성원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것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를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학교 뿐 아니라 하나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기금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상품채플팀 이진호 교수와 일행은 17일 대학 본관에서 최근 진행된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2’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광대,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의

원광대학교는 최근 전국 127개 지방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동원(전북대)·김일환(제주대)·김종우(한국교원대)·민영돈(조선대)·박맹수(원광대)·이광섭(한남대)·이우종(청운대)·이원근(창신대)·정성택(전남대)·차정인(부산대) 총장 등 5개 권역 10명의 총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활동 결과보고와 평가에 이어 협의회별 근황 소개와 의견교환, 차기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비수도권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발족 이후 20회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지방대학들이 처한 위기 실상을 정리해 교육부와 국회 대학교육협의회의, 언론 등에 청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번 회의 참석 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수도권대학 총장협의회와의 지난 2년여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같은 활동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차기 회장에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민정일치로 선출했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